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미 증시, 건강후약의 모습 보이며 혼조세 마감

Key Takeaways

- 마이크로소프트(MSFT), 시가총액 사상 첫 3조 달러 장중 돌파
- 중국인민은행, 지급준비율 50bp 인하 통해 약 1조 위안 규모의 유동성 공급
- 미국 S&P 글로벌 구매관리자지수(PMI) 개선에 미 장기 국채 금리 상승

변화요인

- 미 증시는 기업들의 호실적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 출발 후 장중 상승폭을 확대하였으나, 오후 들어 진행된 국채입찰에 대한 수요 부진과 최근 상승에 대한 가격 부담 영향으로 차익실현 출회하며 혼조세 마감.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에 이어 두 번째로 사상 첫 시가총액 3조 달러를 장중 돌파하였고, 넷플릭스는 4분기 호실적에 10% 넘게 상승. 테크 기업들의 강세 속에 견조한 증시 흐름 보였으나, 미 국채 만기 5년물 이상의 장기채 금리 상승 압력과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연준의 피벗 기대감 약화, 연초이후 랠리에 따른 피로감 등 영향으로 차익실현 물량이 오후에 쏟아지며 건강후약의 모습 보여. 한편, 중국인민은행이 50bp의 지급준비율 인하를 통해 약 1조위안(1400억 달러)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결정. 이에 유가, 구리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 미국과 유럽의 천연가스 역시 최근 낙폭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 영향으로 큰 폭 상승 기록. (다우 -0.3%, 나스닥 +0.4%, S&P500 +0.1%, 러셀2000 -0.8%)
- 글로벌 구매관리자지수(PMI): S&P 글로벌은 주요국들의 1월 구매관리자지수(PMI)를 잠정치를 발표. 우선 미국은 제조업(12월: 47.9→1월:50.3)과 서비스업(51.4→52.9) 모두 전월대비 개선된 흐름을 보이며 각각 15개월,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 유로존은 제조업(44.4→46.6) 경기가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서비스업(48.8→48.4) 경기가 6개월 연속 위축되는 모습 보여. 이러한 모습은 유로존 내 경제대국인 독일과 프랑스도 동일한 모습 보여. 반면, 영국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개선된 흐름 나타나.

특징종목

- 넷플릭스(NFLX, +10.7%)는 지난 해 4분기 약 1310만명의 신규 가입자 수가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2022년 10월 이후 가장 큰 일간 상승률을 기록하며 52주 신고가를 달성. 이외 SAP(SAP, +6.9%), ASML(ASML, +8.9%), 프리포트 맥모란(FCX, +4.1%), 엘러번스 헬스(ELV, +0.3%) 등은 시장 예상을 상회한 실적 발표로 상승. 특히, ASML은 4분기 주문금액이 3분기 총액의 3배가 넘는 약 100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히며 지난 주 TSMC(TSM, +2.1%)에 이어 올해 고성능 반도체 산업에 대한 낙관적 전망 이어가. 이에 엔비디아(NVDA, +2.5%), AMD(AMD, +5.9%) 및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AMAT, +4.2%) 등이 상승. 반면, AT&T(T, -3.0%), 듀폰(DD, -14%),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XN, -2.4%), 김벌리클라크(KMB, -5.5%) 등은 시장 기대를 하회한 실적 발표에 약세. 알리바바(BABA, +1.6%)는 마윈 창업자가 지난 4분기 5천만 달러 상당의 홍콩 주식을 조 차이 회장은 1억 5000만 달러 상당의 미국 주식을 매입했다는 소식에 강세. 포드(F, 3.0%)는 전 세계적으로 약 2백만 대 이상의 익스플로러 SUV에 대한 리콜을 발표하며 약세.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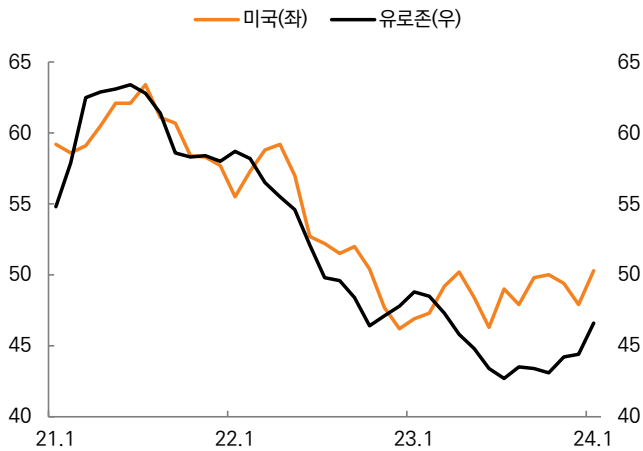
- 글로벌 주요국의 구매관리자지수(PMI)가 호조를 보이자 10년물 중심의 장기채 금리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며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및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최근 한 달래 가장 높은 수준까지 상승. 여기에 미국과 영국은 국채 입찰에 대한 수요 부진, 캐나다와 일본은 최근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 매파적 발언이 수익률 상승에 영향을 끼쳐. 반면, 달러인덱스는 유럽 경기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으로 유로화가 전일대비 0.3% 상승한 영향으로 0.2% 하락 기록.
- 구리 선물 가격은 3주 만에 최고치 기록. 이는 전 세계 구리 소비의 약 60%를 차지하는 중국이 지급준비율을 50bp 인하함으로써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기 때문. 특히, 이번 조치를 통해 시장에 순공급 될 유동성 규모는 약 1조위안(\$1400억) 정도로 부침을 겪고 있는 부동산, 인프라 투자 등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 높아. 세 유입 영향으로 6~8%대 상승.

- 국제유가(WTI)는 미 에너지정보청이 겨울 폭풍으로 인해 노스다코타와 텍사스에서 셰일 오일 채굴이 중단된 이후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지난 한 주 동안 하루 약 100만 배럴 감소했다고 발표. 이는 미국의 일일 원유 생산량의 7.5%에 해당. 또한 같은 기간 원유 재고는 923만 배럴이나 급감하며 2022년 8월 이후 가장 큰 감소세를 기록. 여기에 중국의 부양책도 수요를 자극한 것으로 보여. 또한 미국과 유럽의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최근 과대 낙폭에 따른 저가매수

한국증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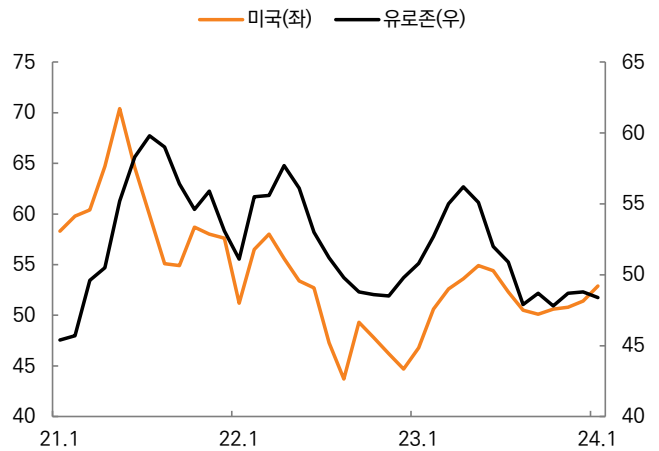
- MSCI 한국 지수 ETF는 0.3%, MSCI 신흥 지수 ETF는 1.1%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31.42원으로 이를 반영한 달러/원 환율은 7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4% 상승. KOSPI는 0.2~0.4% 상승해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 금일 4분기 및 2023년 연간 GDP 성장률과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발표될 예정. 시장은 4분기 GDP 성장률이 전분기대비 0.5%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이는 전분기 0.6%에서 둔화된 수치. 그러나 전년대비로는 이전 1.4%보다 개선된 2.1%를 보일 것으로 예상. 이는 2022년 3분기 이후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2023년 연간으로는 전년대비 1.4% 증가해 2022년 2.6%보다 둔화할 것으로 예상. 한편, 국내 기업들이 있는 체감 경기는 지속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3일 민간(한국경제인연합회)에서 발표한 기업경기실사지수 (BSI)에 따르면 2월 전망치가 92.3을 기록해 2022년 4월 이후 23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하회.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공식자료에 따르면 제조업의 경우, 지난 해 7월 이후 추가적으로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비제조업의 경우 추세적 하락세가 지속되는 모습. 이는 최근 2023년, 2024년 회계연도에 대한 국내 상장사 영업이익 추정치 하향과 결이 같은 부분으로 현재와 같은 금융상황이 지속된다면 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우려 있는 만큼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책에 대한 기대 높아질 것으로 전망. 특히, 건설업 등 재무상황이 여의치 않은 업종 중심으로 선별적 정책 기대 커질 전망.

그림 1. S&P 글로벌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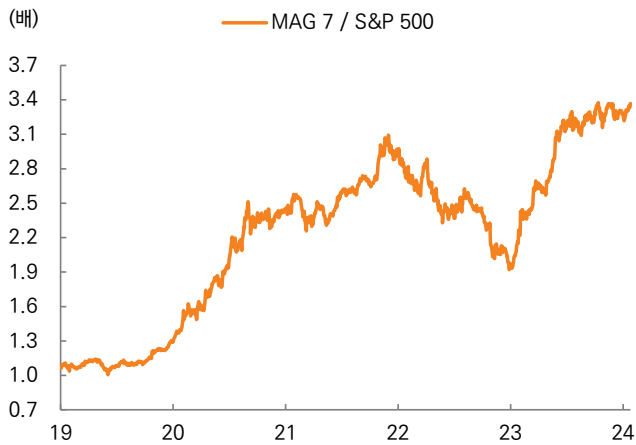
자료: S&P글로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그림 2. S&P 글로벌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자료: S&P글로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그림 3. 상대지수: 매그니피센트 7 vs. S&P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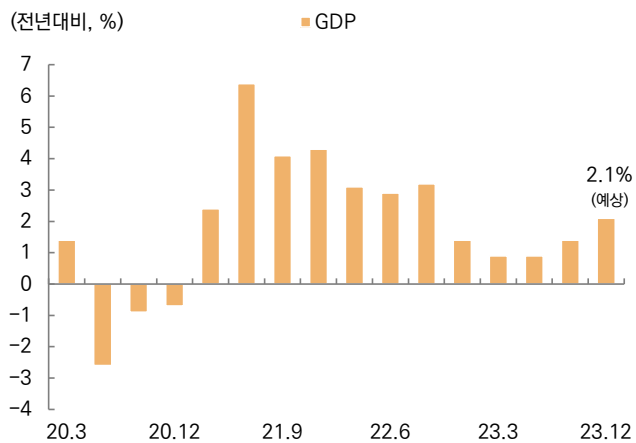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그림 4. 상대지수: 나스닥 100 vs. 러셀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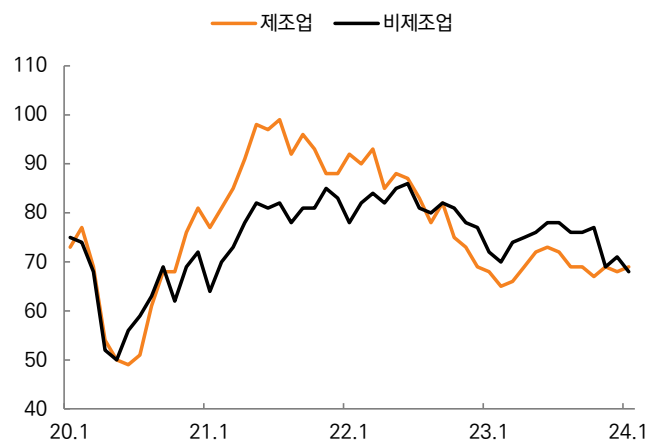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그림 5. 한국 분기별 GDP 성장률



자료: 한국은행,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그림 6. 한국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자료: 한국은행,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Market Snapshot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1.3	대형 가치주 ETF (IVE)	-0.5
클린테크 ETF (CTEC)	-1.1	중형 가치주 ETF (IWS)	-0.7
소매업체 ETF (XLY)	-0.4	소형 가치주 ETF (IWN)	-0.7
온라인소매 ETF (EBIZ)	+0.9	대형 성장주 ETF (VUG)	+0.4
미국 인프라 ETF (PAVE)	-0.7	중형 성장주 ETF (IWP)	-0.6
핀테크 ETF (FINX)	-1.3	소형 성장주 ETF (IWO)	-0.9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0.9	퀄리티 배당주 ETF (QDIV)	-0.4
클라우드 ETF (CLOU)	-0.4	신흥국 고배당 ETF (SDEM)	+2.0
사이버보안 ETF (BUG)	-0.8	신흥국 저변동 ETF (EEMV)	+1.1
전기차&자율주행 ETF (DRIV)	-0.8	미국 국채 ETF (IEF)	-0.3
글로벌 2차전지 ETF (LIT)	+0.2	하이일드 ETF (JNK)	-0.1
바이오섹터 ETF (IBB)	-1.1	신흥국 채권 ETF (EMBD)	-0.3
로봇&AI ETF (BOTZ)	-0.7	물가연동채 ETF (TIP)	-0.2
반도체 ETF (SMH)	+1.8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2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625.02	+1.4	+2.2	-3.7
커뮤니케이션	262.11	+1.2	+5.3	+6.1
IT	3,622.85	+0.8	+6.1	+6.9
금융	637.50	+0.5	+2.9	+2.5
경기소비재	1,384.65	-0.2	+0.7	-2.8
산업재	952.46	-0.6	+2.0	-0.6
헬스케어	1,616.48	-0.9	-0.5	+2.6
필수소비재	758.56	-1.2	-1.1	+0.6
부동산	239.60	-1.4	-1.1	-4.2
유틸리티	304.64	-1.4	-2.8	-4.3
소재	514.46	-1.4	-0.3	-4.8

글로벌 FICC 동향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75.09	+1.4	+4.0	Dollar Index	103.310	-0.3	-0.1
브렌트유	80.04	+1.0	+3.2	EUR/USD	1.0881	+0.2	-0.0
천연가스	2.64	+9.8	-6.2	USD/JPY	147.58	-0.5	-0.4
금	2,035.20	-0.6	+0.3	GBP/USD	1.2719	+0.3	+0.3
은	22.89	+1.4	+0.5	USD/CHF	0.8632	-0.8	-0.1
알루미늄	2,229.50	+0.1	+2.4	AUD/USD	0.6576	-0.1	+0.4
전기동	8,562.50	+1.9	+3.6	USD/CAD	1.3525	+0.5	+0.1
아연	2,584.50	+2.6	+4.8	USD/RUB	88.8149	+0.1	+0.5
옥수수	452.25	+1.2	+2.1	USD/BRL	4.9328	-0.4	+0.0
밀	610.75	+2.5	+4.9	USD/CNH	7.1628	-0.1	-0.8
대두	1,240.25	0.0	+2.8	USD/KRW	1,337.00	+0.3	-0.5
커피	189.45	-1.8	+5.7	USD/KRW NDF1M	1,331.42	-0.4	-0.9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4.176	+4.8	+7.4	스페인	3.260	-1.0	+0.9
한국	3.397	+2.2	+3.7	포르투갈	3.180	-1.3	+2.7
일본	0.717	+4.6	+10.0	그리스	3.378	-2.6	-2.9
독일	2.342	-1.0	+2.6	이탈리아	3.901	-1.7	-1.6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